

韓銀, 콜금리 3개월째 동결

■ 의미와 전망

“환율 하락 부추길라” 일단 현상태 유지

유가 상승·IT가격 하락·건설 부진 등 ‘더블딥’ 우려도 전문가들 “경기둔화 가능성 시인…年内 인상 어려울듯”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의 환율급락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연초부터 계속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최근 900원선까지 위험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목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선행적’ 통화정책은 일단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불안 등 올 들어 자산거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3개월째 금리를 끌어놓은 금통위의 향후 입지를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급락이 결정적 요인=윤 연초

1천100원대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4개월여만에 무려 100원 가까이 떨어지는 수직하락세를 보였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2월 등 세차례 콜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추가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사했지만 최근의 환율 급락을 무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연일 아우성치고 있고 정부와 정부까지 나서 환율급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놓으면서 금통위원들을 간접 압박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제금융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를 부추겨 원화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의 직

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통위원들로서는 떨쳐내기 힘든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우려 동결 ‘지지’=이상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물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융완화 기조를 조금씩 조정할 것”이라며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콜금리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환율 급락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 정보기술(IT)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고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 통화정책 요구 목소리 부담=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함으로써 환율급락에 몸서리를 치는 기업들이나 경기둔화를 걱정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일단 잠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한 무게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우선 악단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열린 금통위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언급이 계속 등장했다는 점으로 미뤄 금통위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무위’로 일관한 대안 비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한 이상 총재가 환율에 대한 우려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때문에 시의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도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역시 한은 금통위의 과감한 결단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무려 17차례나 연속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미국 통화당국과 비교당하는 처지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앞으로도 인상 어려울듯”=전문가들은 이날 한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에 대해 경기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시인한 결과라면 향후 추가 인상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경제분석팀장은 “이날 결정은 한은이 경기둔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당분간 거시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원도 “이날 인상하지 못했으나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환율 요인이 있는 데다 인상 압력이 됐던 부동산가격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환율 급락은 환차익 노린 외국자금 탓”

신한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최근 원·달러 환율은 환차익을 노린 외국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한은행 FSB(미래전략)연구소의 이현우 연구원은 11일 환율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한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은 97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1월에만 54억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외국자금의 유입 강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유 이틀째 상승…65.93달러

달러선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협률가는 역시 1.56달러 오른 72.13달러에 거래됐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협률기의 경우 69.79달러로 0.48달러 하락했다.

/연합뉴스

고용시장 ‘겨울잠’

계절조정실업률 3.5%…광주·전남은 큰폭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한 계절조정실업률은 3개월째 3.5%대를 이어간 대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 들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크게 밟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4월보다 0.3% 떨어졌다. 실업자 수도 8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6.4%(5만8천명) 줄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을 반영하는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2.3월과 동일한 3.5%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2천324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30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규모는 35만~40만명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

해 4월보다 1.9%(8만3천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체감경기와 밀접한 도소매·음식숙박업도 0.3%(1만8천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실업률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4월 실업자가 2만9천명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4월보다 8.8%(3천명) 줄었다. 전남도 실업자가 1만6천명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36.2%(9천명)나 감소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광주·전남의 4월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46만4천명, 52만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1만8천명), 3.5%(1만8천명) 증가했다.

광주전남지방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동향은 보통 경기에 비해 6개월정도 후행한다”며 “최근 경기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품산업계 기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현대·기아 협력회 2006. 5. 1



11일 서초동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현대·기아 협력회 주최로 열린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품산업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납품업체들 “경영 위기” 호소

현대·기아차 납품업체들이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모임인 현대·기아자동차협력회는 11일 서초동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과급 효과 등을 감안해 정몽구 회장 및 최고

경영진들의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해결돼 하루속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영섭 현대·기아자동차협력회 회장은 “환율하락과 고유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겸정받고 경험 많은 경영자인 정몽구 회장이 빨리 경영일선에 복귀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면서 “리더가 없으니 자동차 산업 전체가 불안하다”고 호

소했다.

현대차에 차체 부품을 납품하는 성우 하이Tek 이명근 대표는 “현대차의 체코 공장에 맞춰 동반 진출을 고심중인데 정회장의 구속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부품업체는 922곳이며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은 20만8천여명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도시근로자 상위 10% 年소득 1억 육박

월 평균 845만원

도시근로자기구 중 소득상위 10% 가구의 연간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기구가 3천6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결과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0년 605만원에서 2001년 665만원, 2002년 687만원, 2003년 699만원, 2004년 736만원, 2005년 774만원으로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기구는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로서 가구주가 일금근로자인 가구를 말하고 가구소득에는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외 사업·재산·이전소득과 경조사소득

같은 일회성 성격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000년 7천260만원, 2001년 7천980만원, 2002년 8천240만원, 2003년 8천390만원, 2004년 8천830만원, 2005년 9천290만원 등이 된다.

조사상 전체 도시근로자기구의 2005년 평균 연소득(3천900만원)의 2.4배에 해당되는 수임이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4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이 증가율이 남은 분기 동안 유지된다면 올해 소득상위 10% 가구의 연간소득은 9천69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를 가구의 최근 3년 연소득 평균증가율은 4.0%였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천미디어	ENG카메라보정(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2	062-224-0088
㈜에스아이투어(주)	콜센터 고객상담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2	062-224-5401
㈜엔지테크	병원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래머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675-8750
㈜한국경업엔지니어링	2006년 상반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5	062-369-0790
㈜광주광역정보센터	프로그래머(C/S)/회계/세무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224-8564
서도건설(주)	경리, 회계, 세무(건설업)	고졸/경력1년	1,200~1,400	05/15	062-682-8383
㈜HRN	[주5일]SK텔레콤 미납고객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7	062-529-2671
코디세일	상품 입출고 및 재고관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7	011-610-4499
㈜스텝포유	[센트럴점30명]LG카드 DM센터/신용관리센터 사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5/18	062-412-5454
주식회사 소디	개발 및 생산관리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5/20	062-970-3506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5/20	062-942-9234
㈜미트앤미트	매장관리 및 판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2-574-5106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삼성-현대그룹

가장 성공할 글로벌 기업”

골드만삭스 27개사 선정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GE, MS, 노키아 등과 함께 성공적이고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꼽혔다.

골드만삭스는 11일 ‘제 141호 글로벌 경제 페퍼’를 통해 향후 5~10년 동안 진행될 세계화에서 가장 성공적일 기업을 ‘잠재적 글로코(Gloo)’로 칭하고 해당 기업으로 27개사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포함해 AIG, BP, 시스코, 시그마, 코카콜라, 멜, GE, 글락소 스미